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 / Praise /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 내 삶의 이유라	다같이
대표기도		최효은
*성경봉독	마 18:27~33	허주안
말씀	형제를 용서하라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그 사랑_아름다우신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조혜연
*파송찬양	하나님의 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그 사랑 / 아름다우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름다우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운신 형언할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형제를 용서하라 (마 18:27~33)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29 그 동료가 없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빚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솔직하게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가버나움에 가서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주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교회가 치리해야 함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베드로는 당시 유대교의 용서의 기준인 세 번보다 많은 일곱 번 용서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뿐 아니라 듣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무자비한 종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 백 데나리온 (만 달란트의 60만분의 1)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늘 아버지이시고,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며, 백 데나리온 빚진 자는 우리에게 소소하게 잘못된 형제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악한 종과 같이 여기실 것이라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전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사함의 권리도 포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 죄는 이미 처리되었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알겠지만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용서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종은 왜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27-28절을 읽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종이 큰 빚을 탕감 받은 후에 그 은혜에 감격하거나 감사하는 모습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탕감 받았을 당시는 크게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감사 표현도 없이 바로 그 자리를 뜹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그는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이 차갑게 돌변한 것과 그가 감사하지 않은 것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는 굉장히 빠른 아이입니다. 애가 3학년때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들에게 좋은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여러 곳을 데리고 갔는데, 첫째아이는 그곳을 즐기기보다는 그 다음에 어디 갈지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제게, “아빠, 우리 다음에 어디가?”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자 점점 제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왜 우리 딸은 지금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다음 것 생각하느라 좋은 것을 즐기지 못할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은 제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기도한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깊이 머물기보단 그 다음 스텝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머물기 힘듭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종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탕감 받은 것은 기쁘지만 끝난 일이고, 다음으로 나아가려니까 자신에게 갚는 빚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변한 것 아닐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은혜를 잊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용서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용서는 율법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수준에 절대로 도달 못합니다. 용서는 주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한 질문은 세 번이든 일곱 번이든 여전히 용서가 율법과 의지 영역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횡수를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용서가 율법이나 의지 영역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용서는 은혜로만 할 수 있단다.” “너는 받은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물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된 속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 말씀조차,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거야. 그러니 나는 용서해야만 해” 라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용서는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해석에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섭기만 한 분이십니다.

말씀산책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그저 그 자가 불쌍해서,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마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 들을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생자를 너희에게 내어 준 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너희를 모른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긍휼이고, 용서는 인내입니다. 용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의지로 따라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용서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그 가운데 침잠합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용서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멘!

묵상 질문

1. 내 의지나 도덕이나 신앙심으로 형제를 세 번이상 용서한 적이 있나요? 이것을 일곱 번씩 일흔 번 할 수 있을까요?
2. 내가 지금 용서해야 하는 형제가 있나요? 그 형제를 용서할 마음이 내 안에 풍성히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3. 결국, 은혜 안에 있는 자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방법을 나눠보세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렵 사라져
내 안의 주의 나라 이루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싱어, 건반, 드럼 (문의: 전승엽, 전하영) ----->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신청 QR

청년부 단체특방 신설

-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청년부 전체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알림 위주로 특방이 운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2025년 청년부 회장 선거

- 4/21까지 추천자 추천 받고 있습니다. ----->
-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 영적 리더를 지혜롭게 선출하기
원합니다.
- 추천자 개인이사 확인과정이 있으니, 배려심때문에 주저마시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회장 선거 QR

동아리/큐티모임 권장

- 단체 카톡방에 동아리 모임 링크를 드렸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경읽기(공부) 모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검토 후에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신약 통독

- 통독표는 사무실 앞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주일까지)
- 구약 통독은 5월 1일부터 시작

교역자 동정

- 김상범 목사 : 4/21~5/3 (D.Min 수업, 보스턴)
- 다음주 예배는 이강현 목사님께서 집무해 주시겠습니다.

VBS 2024 봉사자 모집

- 6월 3일(월) ~ 6월 7일(금), 9:30AM~12:00PM
- 신청 : QR 코드로 ----->



VBS 봉사 신청 Q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2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이성민	seongminlee123@gmail.com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_

예수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마 16: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